

서양화가 한잼마를 만나다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아티스트

얼마 전 일산에 위치한 주택문화관을 래미안 갤러리로 탈바꿈해 건축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서양화가 한잼마. 4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를 홍대에 위치한 그녀의 작업실에서 만나보았다.

에디터 이은숙 사진 최지영



“전시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아 공백을 두었는데 이번에 결심한 것은 이제 절대로 공백은 두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한번 공백을 두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일은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녀는 요즘 4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 막바지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3월 8~14일, 인사아트센터). ‘자화상’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신문, 주간지, 월간지에 글을 기고하고 교육 방송, 케이블 방송 등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던 그녀의 모습을 총정리해서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에 여는 개인전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제가 여러 매체나 미디어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제대로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활동해왔던 모든 일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좋아서 한 일들이었다.

방송이든, 글을 쓰는 작업이든 그 작업들 안에는 항상 그녀 자신이 들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를 미술 전문 MC나 그림 읽어주는 여자라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껏 그녀가 해왔던 작업들은 분리된 것이 아닌 결국 하나의 작업이었다는 것을 이번 개인전 ‘텔레팸(Telepub:Tele는 Television의 구어이고 pub은 public, publisher를 의미)’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그동안 저는 지퍼나 단추 등 연결 속성이 있는 오브제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가 바로 세상을 향한 경첩이고, 지퍼고, 단추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잼마,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바로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인터미디어(Inter Median)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녀는 명목상 존재했던 강남 주택문화관을 래미안 갤러리로 바꿔 각종 문화와 전시 공간 기능을 강화해 래미안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작업을 선보여 건축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녀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재탄생한 래미안 갤러리는 전시 공간과 공연 시설이 갖춰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 건축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래미안 주택문화관을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 결국 안에 발을 들여놓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학원 시절부터 그녀의 화두였으며 지금까지 모든 작업의 주제인 ‘소통’이며 ‘관계’다. “갤러리나 미술관도 즐겨 찾지 않는 요즘 사람들에게 주택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선보였더니 같은 작품이라도 갤러리보다 이곳에서 더 호응이 좋고 소통도 잘되더라고요.”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주택문화관도 그녀의 손이 닿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한잼마가 가진 힘이다.

미술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그녀. 요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고 깊어졌단다. 하지만 뭐 봉사가 별거겠는가. 작가가 시대를 반영하고 미래를 변화시킬 만큼의 좋은 작업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봉사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 미술 전문 MC 등 많은 타이틀 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그녀는 불쑥 “사고 치는 여자요”라고 말한다.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고 치야죠. 사고 한번 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5년 동안 준비한 그녀의 신간은 올가을쯤 만나볼 수 있다. 올해 역시 전시나 신간 출간, 건축과의 만남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그녀의 행복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